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1회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H-ater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장 소 :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3**** | 이름 | 김○후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19**** | 이름 | 조○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김○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1**** | 이름 | 이○정 |    |  |    |  |
| 토의 내용<br>(읽은 책을 중심으로) | <p>1. 개요</p> <p>1) 대상 도서: 『인간은 필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제리 카플란 저, 신동숙 역)</p> <div data-bbox="715 992 1241 1742" data-label="Image"> </div> <p>- 『인간은 필요 없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한 책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더하여 로봇 공학, 자율 주행, 가상 현실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불러올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p> |          |    |     |    |  |    |  |

2) 토의 주제

(1)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 인공지능의 위상 변화,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조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2) 인공지능과 기계화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가?

-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여러 사회문제,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 불평등 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2. 세부 토의내용

1)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김○후)

인간과 기계는 서로 협업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기계화 기술은 반복 작업에서 오는 피로를 줄여주고, 창조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인간과 기계는 서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므로 분업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컨대, 기계는 반복·규칙적 작업, 다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할 것이고, 사람은 감정적 요소가 포함된 작업,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작업 등을 맡게 될 것이다.

기계를 공포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알맞은 활용 방법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규범의 제정, 일자리 및 재분배 정책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미래 기술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연)

인간과 기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것이라는 예측은 성급한 판단이다. 기계의 도입으로 단순 업무부터 시작하여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 이들이 단시간에 새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계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을 무조건 수용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계가 인간에 잘 반응하고, 적절한 윤리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의식이 요구되는데, 기계가 이런 의식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직 기술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의 도입만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다.

(김○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대한 침탈을 가져온 것과 같이, 충분한 고려 없는 기술 도입은 인간 활동의 제약을 초래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인공지능이 인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거나 재생산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산업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진출함은 사회 양극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경제적 상위층은 필요에 따라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하위층은 실업에 직면하거나, 로봇을 생산·배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뿐이고, 결국 경제 양극화는 갈수록 커지게 된다.

기계의 도입이 늘어나다 보면, 기계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판단 또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자의적으로 기계가 특정한 입장을 택하게 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정)

인간과 기계는 조화롭게 공존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정보 기술들을 삶의 여러 부분에서 유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계는 인간 욕구의 실현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기계는 오차 없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과 속도 면에서 인간보다 장점을 갖고 있다. 생산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전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술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소멸과 생성이라는 두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미래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단지 부정적 전망에만 매몰될 이유는 없다.

2) 인공지능과 기계화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가?

(김○후)

일자리와 재분배 문제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직업 재교육, 기술 적응 훈련, 신산업 분야 연구 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기술이 가져오는 영향은 사회의 계층별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막대한 정보를 갖게 된 기술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다. 기술 대기업들의 독점을 제한하고, 이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화 로봇이 사람 대신 임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법적 책임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

(조○연)

실업에 직면한 사람들이 개인적 형편으로 인하여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업자와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비슷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도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와의 조화가 중요해진다. 기술의 조화로운 이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공지능 및 기계화 기술에 대한 올바른 시각 확립이 필요하다.

(김○연)

본격적인 기술 도입이 이루어지면 광범위한 기계의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숙고 없이 기술을 도입한다면 많은 사회적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술 도입 이전에 정책 및 규범 등과 관련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평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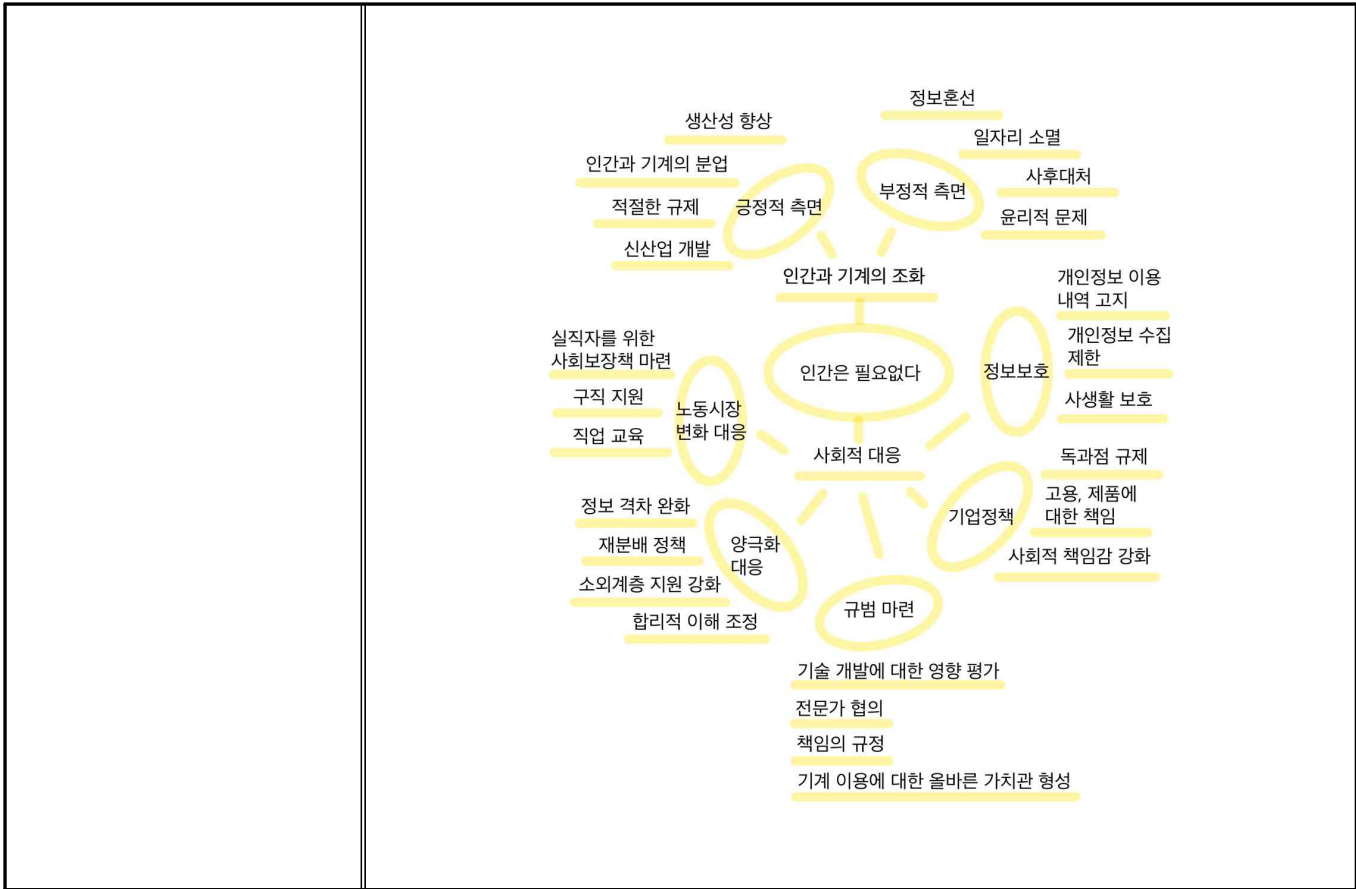
또한 자동화·기계화 시스템에 단순히 의존한다면 인간은 주체적 사고를 갖기 어렵게 된다. 사회기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가져올 사생활 감시 및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적 자원의 독점 및 양극화에 맞서 국가는 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는 경제적 및 교육적 지원책을 펴되,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정)

기계화 기술의 발전은 부의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다. 디지털 사회 전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고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기계화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기술이 가져올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에 대한 연령대별 교육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사회도 계속 변화하므로, 그에 맞는 규범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3. 구조도



2023년 4월 11일

참가자대표 : 김○후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2회차

|                              |  |          |    |     |    |  |    |  |
|------------------------------|--|----------|----|-----|----|--|----|--|
| <b>북클럽 팀명</b>                | H-ater   |          |    |     |    |  |    |  |
| <b>운영일시 / 장소</b>             | 일 시 : 2023년 5월 2일 (화요일) / 장 소 :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          |    |     |    |  |    |  |
| <b>참석자 명단</b>                | 학번   | 2023**** | 이름 | 김○후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19**** | 이름 | 조○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김○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1**** | 이름 | 이○정 |    |  |    |  |
| <b>토의 내용</b><br>(읽은 책을 중심으로) | <p>1. 개요</p> <p>1) 대상 도서: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송길영 저)</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b>Don't Just Do It!</b><br/>Your Every Move is the Message<br/><small>Song Gilyoung</small></p> <p>팍스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그냥 하지 말라</b><br/>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br/><small>송길영 저음</small></p> <p>리터스원</p> </div> </div> <p>- 『그냥 하지 말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미래의 모습을 다룬 책이다. 데이터에 나타난 미래의 트렌드 및 사회 변화를 다루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비대면 확산, 사회의 분화, 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성숙한 공존, 일의 진정성, 이성적 사고를 갖출 것을 저자는 주장한다.</p> <p>2) 토의 주제</p> |          |    |     |    |  |    |  |

- (1) 원격 근무와 개인적 삶의 확산이 소통의 단절을 유발하는가?  
 - 미래사회 변화 중 하나로 제시되는 원격근무와 개인적인 생활 양식 확산의 의미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소통 방식에 대하여 전망해본다.
- (2) 개인의 생활과 조직의 목표 달성이 조화롭게 추구될 수 있는가?  
 - 성장의 변화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조직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법,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등을 생각해본다.

2. 세부 토의내용

- 1) 원격 근무와 개인적 삶의 확산이 소통의 단절을 유발하는가?

(김○후)

원격 문화 확산은 소외 또는 소통의 단절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선택지를 다양하게 하는 측면이 크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이다. 전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문화가 변화되는 것이다.

원격 업무는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고, 소통의 공식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더 정확한 업무 평가 및 시공간 제약 완화 등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 시간에는 여가 활동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서 충분히 원격 작업이 가능한 일들이 있다고 본다.

또한 산업에서의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소비자 접근성 및 이용편의를 위한 것으로, 대면 상호작용의 회피나 인간관계 축소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혼자 하는 문화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혼자 다양하게 활동한다는 것이 반드시 교류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전보다 삶에 있어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활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원격 소통의 확산은 시공간 제약을 줄여주는 면이 있지만,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소외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 학생들은 정보 기기의 부족으로 교육 매체 접근이 제한되어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산업에서의 무인화도 하나의 현상일 뿐, 소통의 단절은 아니라고 본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인매장은 구매 압력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자 측에서도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연)

선택적 관계 형성은 인간관계의 소외를 불러올 수도 있다. 혼자 하는 문화의 확산은 사회적인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접촉이 줄어든 코로나 기간동안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라고 불리는 사회적 단절감이나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전환에 따라 SNS상에서의 비교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정서적 만족감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업무와 연관해서, 물론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모든 방식이 원격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면 소통 및 관계 형성도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물리적 매체에 비하여 집중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면 소통과 일정한 업무규칙이 있을 때, 더 큰 업무 효율이 발휘될 수 있다.

(이○정)

비대면 문화 확산은 관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있어 시공간 장벽을 완화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업무 이후 여가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생활비용을 고려할 때, 비대면 소통은 특정한 장소 제약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늘어나는 무인 매장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잘 작용했다고 본다. 대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향후 무인 서비스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개인의 생활과 조직의 목표 달성이 조화롭게 추구될 수 있는가?

(김○후)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과 일치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이 많이 늘었다. 종신 고용의 약화, 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성장 둔화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된다. 개인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더라도 조직으로부터 상응하는 인정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직은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기를 바라지 말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야 한다. 일방향이 소통 방식을 버리고,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러한 시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자율적 동기부여를 가능케 할 권한의 위임과 합리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연)

비즈니스 문화에 있어서 선택권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빠르고 압축적인 성장을 거뒀기에 근면과 희생만이 강조된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지 못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유럽 국가들과 같이 어떤 차원이든 성장의 양적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더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김○연)

위계 구조 안에서 소통의 단절과 갈등이 생기자 보니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은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를 원하지만, 조직은 이에 대하여 이직의 시도로 평가하기도 한다. 현재의 조직은 목표 달성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개인의 이런 욕구들에 대하여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이러한 불만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도모한다면 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가와 관련하여, 단체나 팀 위주의 평가보다는 개인별 평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다만 동시에 조직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들 상호 간 관계 등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정)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이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될 것이다. 다만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개인도 같이 노력한다면 개인의 가치 역시 증대될 수 있다.

업무환경 다양화 등을 통해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을 때에 성취동기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상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3. 구조도



2023년 5월 2일

참가자대표 : 김○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3회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H-ater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 장 소 :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3**** | 이름 | 김○후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19**** | 이름 | 조○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김○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1**** | 이름 | 이○정 |    |  |    |  |
| <p>토의 내용<br/>(읽은 책을 중심으로)</p> | <p>1. 개요</p> <p>1) 대상 도서: 『데이터 자본주의: 폭발하는 데이터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재발명하는가』(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토마스 램게 저, 흥경탁 역)</p> <div data-bbox="762 1025 1193 1503"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data-bbox="715 1534 1236 1731"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10px;"> <p><b>「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b><br/> <b>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와의 대담 수록</b></p> <p>“이 책은 화폐 기반의 자본주의가 데이터 기반으로 진화함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의 관심을 인간을 위한 본연의 가치로 환원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하다.”</p> <p>- 송달영 대담소프트 이사장</p> <p>21세기북스</p> </div> <p>- 『데이터 자본주의』는 화폐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을 다룬 책이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효율성, 선택의 다양성, 소득분배 등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p> <p>2) 토의 주제</p> |          |    |     |    |  |    |  |

(1) 데이터 기반의 미래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 데이터의 변화된 역할을 중심으로 미래 자본주의의 모습을 전망한다.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활용 형태와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동안 경제의 중심으로 작용해왔던 화폐의 역할을 데이터가 대체하게 될지 토의해본다.

(2)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 데이터 중심의 경제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증가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와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초래할 문제 및 연관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 2. 세부 토의내용

1) 데이터 기반의 미래 경제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김○후)

거래를 하는 데 있어 그동안은 가격이라는 단일 요소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의 활용은 세부 사항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의 역할이 데이터에 의해 완전히 대체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더라도 현실에서의 거래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자본 조달에 있어 금융 시장이 갖는 중요성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흐름을 통해 경제가 순환하는 것이 경제의 본질적 작동방식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경제의 주요소로 기능하되, 데이터는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가 갖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면,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조○연)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정보 유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기업들은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권력이나 자본처럼 기능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기업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수익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감행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데이터가 경제의 중심이 되며, 자본의 역할도 일부 대체할 것이다. 전자 화폐의 등장과 간편결제 서비스 보급으로 화폐의 개념이 변화할 것이고, 데이터 격차의 문제가 불평등 심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을 수 있다.

(김○연)

현재도 자본 보유 정도에 따라서 생활격차가 크게 벌어지는데 거기에 정보가 결합된다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 접근의 기회가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한, 양극화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경제적 계층구조에 따라 정보 보유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가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화폐를 대신할 수 있으려면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활용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의 중요 요소가 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또한, 책에서는 데이터가 화폐를 대체했을 때 비합리적 의사 결정과 금융시스템 오작동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데이터 사용이 늘어 나더라도 여전히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져서 그 중요성이 화폐의 중요성과 비견될 것이다.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떠나 데이터를 보유한 자가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정보 보유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는 만큼, 그 지위나 영향력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화폐의 가치를 더 잘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측면도 있다.

다만 정형 데이터를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을 전부 결정할 수는 없다. 데이터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2)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김○후)

기업은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를 적극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규율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개인이 기업의 데이터 수집 행위에 맞서서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이용내역과 목적을 개인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개인들이 정보 제공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수집 데이터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와 확인도 필요하다. 알고리즘 조작 감시, 데이터 독점 규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부 당국 차원에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현황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감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기업에는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통해 기업은 개인의 취향과 문화 트렌드를 파악하며, 마케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정보를 가진 측과 가지지 못한 측 사이의 정보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이 개인에게 개인정보 활용 내역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그 정의가

명확해져야 한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자산처럼 간주하여 축적하고자 하는 것에 맞서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정보의 오남용을 막는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연)

각종 스마트기기와 플랫폼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리가 계속 이용하는 데이터에 관한 완전한 대책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선택권 강화와 철저한 이용 규정이 필요하다. 정책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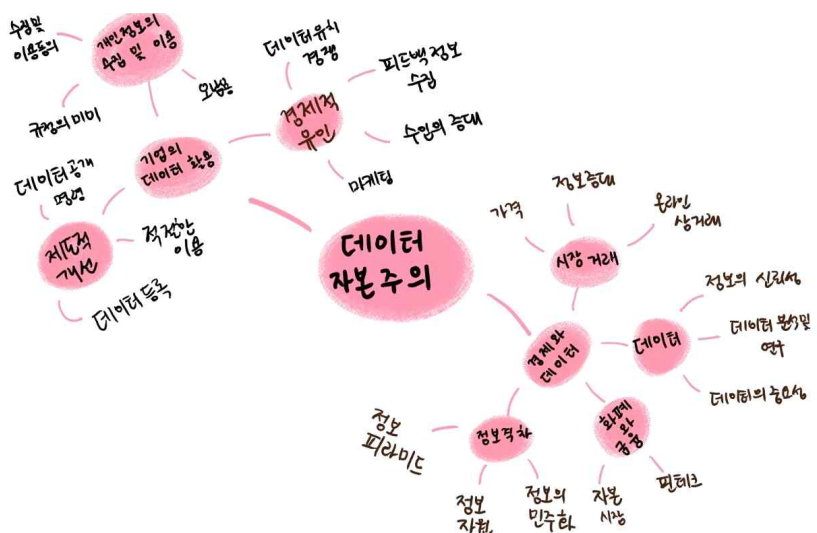
기업들이 수집 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기기를 통한 경제적 거래가 세계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닌 세계적 차원으로서의 데이터 관련 규범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정)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안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를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용 목적과 형태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데이터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구조도



2023년 5월 9일

참가자대표 : 김○후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4회차

|   |  |          |    |     |    |  |    |  |
|---|--|----------|----|-----|----|--|----|--|
| 북클럽 팀명  | H-ater   |          |    |     |    |  |    |  |
| 운영일시 / 장소   | 일 시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장 소 :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          |    |     |    |  |    |  |
| 참석자 명단  | 학번   | 2023**** | 이름 | 김○후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19**** | 이름 | 조○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김○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1**** | 이름 | 이○정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br/>(읽은 책을 중심으로)</p> | <p>1. 개요</p> <p>1) 대상 도서: 『GPT 제너레이션: 챗GPT가 바꿀 인류의 미래』(이시한 저)</p> <div data-bbox="699 947 1251 1675" data-label="Image"> </div> <p>- 『GPT 제너레이션』은 Chat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영역과 잠재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이다. 언어 기반 생성형 AI의 개념, 할 수 있는 일과 적용 분야, 생활 양상의 변화 및 인간의 생존 방법 등에 대하여 풀어내고 있다.</p> <p>2) 토의 주제</p> |          |    |     |    |  |    |  |

(1) 학습과 교육 분야에서 ChatGPT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 ChatGPT의 활용 영역 중에서 학습과 교육 분야에서의 적용 형태를 생각해 본다. 학습에서의 적용 방식, 달라지는 교육의 모습, 올바른 활용방법 등을 토의 해본다.

(2) 창작 활동에 있어서 ChatGPT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모델이 어떻게 창작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AI가 생성해낸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인정, 저작권, 인공지능 시대에 창작이 갖는 의미 등을 생각해본다.

2. 세부 토의내용

1) 학습과 교육 분야에서 ChatGPT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김○후)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배경지식을 얻기 위해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유용성이 있다. 사람마다 사전지식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르므로, ChatGPT를 학습에 활용한다면 개인별 맞춤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교수자 측에서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작문, 회화를 연습하거나 문법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을 위한 활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움을 받더라도, 독서와 능동적 사고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미래에는 좋은 질문을 던지고, 내용의 타당성을 판별하며,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연)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자료를 선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글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되므로 독해력이 떨어지거나, 자신만의 생각 및 주관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hatGPT의 활용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선별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ChatGPT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면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결과를 검증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김○연)

ChatGPT는 맞춤형 지식 전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면을 갖고 있다. 이처럼 편리성을 갖추고 있지만, 스스로 작업을 완성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지식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울 수 없으므로, 여전히 대면 교육과 소통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내놓는 오류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식을 평가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닌,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비판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코딩 교육 등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내놓는 정보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고, 내용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정)

ChatGPT가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과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기존의 지식을 어느 정도 기초로 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질문한 것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주는 ChatGPT의 장점은 학습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ChatGPT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독해력과 사고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교육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하여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되고, 스스로 사고를 발전시키는 실험, 실습, 시연 등 직접 참여 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2) 창작 활동에 있어서 ChatGPT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김○후)

인공지능이 창작 활동에 있어 갖는 활용성을 높이려면 정보의 정확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도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창작에 있어서 작품의 주요 사상을 특정한 사람이 제공했다면 그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ChatGPT 역시 기존 창작물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권리 인정의 난점도 있다. 저작권 판단에 관한 세부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창작의 단계를 아이디어 제시, 표현 방식의 결정, 물리적 표현 등으로 더 자세하게 구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연)

ChatGPT를 통해 창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의 원천을 알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저작권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논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산출한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의 올바른 이용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규 정비와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ChatGPT가 만들어내는 정보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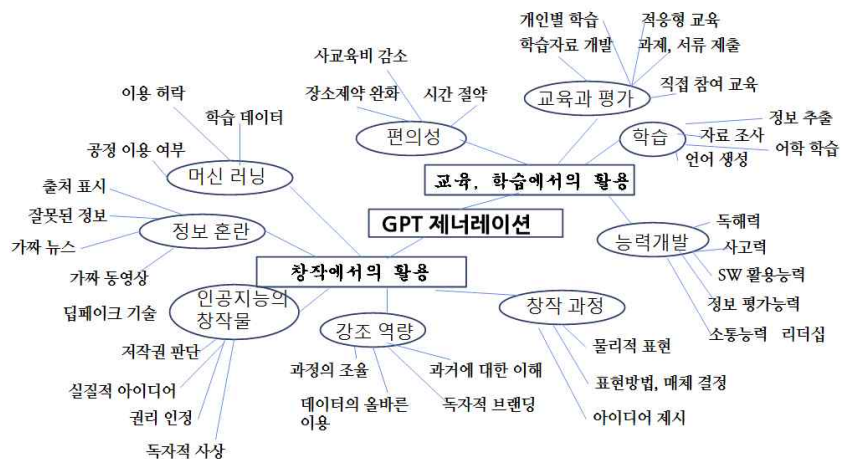
ChatGPT의 개발로 창작이 인간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ChatGPT는 언어 생성을 기반으로 창작에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창작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하여 지시한 사람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저작권 판단을 위한 기준들이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 인정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와 자기가 독자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 그리고 창작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ChatGPT를 창작 활동 등에 적절히 활용하려면 SW교육도 필요하지만, 전체적 창작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획력과 통찰력이 필요하게 된다. 전체적 과정을 조율하는 통솔자 역할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영감을 얻는 동시에 과거에 대한 가치도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

ChatGPT가 창작 활동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면, 인공지능의 전문 인력들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과연 그 결과물은 누구의 권리로 인정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화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소통 및 리더십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3. 구조도



2023년 5월 16일

참가자대표 : 김○후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5회차

|                              |   |          |    |     |    |  |    |  |
|------------------------------|---|----------|----|-----|----|--|----|--|
| <b>북클럽 팀명</b>                | H-ater  |          |    |     |    |  |    |  |
| <b>운영일시 / 장소</b>             | 일 시 :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 장 소 :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          |    |     |    |  |    |  |
| <b>참석자 명단</b>                | 학번  | 2023**** | 이름 | 김○후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19**** | 이름 | 조○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김○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1**** | 이름 | 이○정 |    |  |    |  |
| <b>토의 내용</b><br>(읽은 책을 중심으로) | <p>1. 개요</p> <p>1) 대상 도서: 『AI 2041: 10개의 결정적 장면으로 읽는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리카이푸, 천치우판 저, 배미주 역)</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p> <p><b>아마존 NO.1</b></p> <p>논픽션</p> <p>★★★★★</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미래에 대한 가장 흥미롭고 대담한 예언</p> <p>—레이 달리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어지는 책</p> <p>—정재승</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p>미국, 독일, 영국, 일본 베스트셀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p>뇌과학자 정재승 IT 현자 박태웅 강력 추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border-radius: 50%; padding: 5px;"> <p>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p> </div> </div> <p>- 『AI 2041』은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삶의 모습을 10개의 주요 장면으로 구성한 책이다. 인공지능의 적용 모습을 공상과학 소설 및 인공지능 전문가의 기술 분석을 중심으로 엮어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생활상의 변화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p> |          |    |     |    |  |    |  |

2) 토의 주제

(1)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미래에 대한 예측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에 적용되었을 때, 우리 생활에 어떠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2)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분야는 무엇인가?

-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삶의 양상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생각해본다.

2. 세부 토의내용

1)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김○후)

자율무기의 개발이 가져오는 안전의 위협이 문제된다. 생물학과 화학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면 새로운 바이러스나 유해물질을 얻어 공격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의 문제가 있다. 방대한 컴퓨팅 시스템은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기후 위기와 맞물려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발전 등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조○연)

AI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지는 이들은 고소득층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경제적 빈곤층은 생계문제 등으로 AI 기술을 습득할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빈부 격차가 지식 및 정보의 격차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곧 광범위한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 분화라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김○연)

인공지능이 사람에 대해 분석하면서 인간을 통제할 수도 있다. 특정한 사람의 활동과 취향 정보를 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것은 감시나 편견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딥페이크 기술은 인간의 감각이나 인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죽은 사람이나 허락받지 않은 타인의 모습을 재현하게 된다면, 사생활의 침해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 현실에 빠져서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실제 현실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자율무기의 가능성, 일자리 대체 등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학자들이 기술이 갖는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특정한 기술 개발이 사회와 인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새로운 형태의

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정)

가짜 정보로 인한 정보 혼선의 문제가 있다. 가짜 뉴스, 딥페이크 사진, 영상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정보를 식별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은 선거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 또한 가상 현실 기술의 발달이 완벽한 이상향과의 비교를 낳아, 사회 전체적인 행복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분야는 무엇인가?

(김○후)

미래에는 생명공학 분야와 양자컴퓨팅 분야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접목은 의약품 개발, 계통 분석, 새로운 질병 치료법의 개발 등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도 잠재력이 크다. 양자 컴퓨팅은 중첩과 얽힘이라는 특징이 있는 큐비트를 연산에 이용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는 등 연산 능력의 비약적 증가를 예상된다.

(조○연)

AI가 다양한 창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직 불안정한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의 발전 속도라면 불완전성이 점차 개선되어 나중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창의성을 보여주는 때가 올 수도 있다.

데이터 분야도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라서 크나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데이터 분석 기술 적용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연)

컨설팅, 보건의료, 자연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컨설팅 영역은 금융·상담·교육 등 피드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보 제공 및 진단, 솔루션 제안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건의료 역시 환자 데이터 관리, 수술 장비 도입, 연구 개발 등 첨단 기술과 밀접한 분야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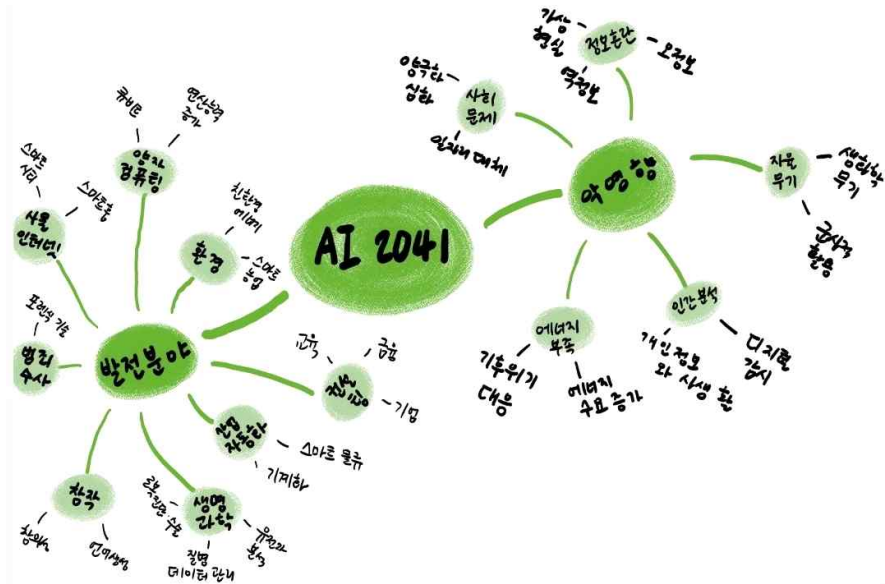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에너지·농업·환경 관리에 필요한 세부 방안 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일상생활과 가까운 영역부터 시작해서 기술 도입이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이○정)

범죄 수사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여러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범죄 수사에 있어서 증거 분석을 통해 범인을 찾아낼 확률이 높일 수 있다. 예컨대, DNA 분석을 통해 미제 사건을 해결하거나, 범죄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사건들을 탐지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하고, 질병의 진단과 수술 등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희귀성 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에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 3. 구조도



2023년 5월 23일

참가자대표 : 김○후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 6회차

|                               |  |          |    |     |    |  |    |  |
|-------------------------------|--|----------|----|-----|----|--|----|--|
| <b>북클럽 팀명</b>                 | H-ater   |          |    |     |    |  |    |  |
| <b>운영일시 / 장소</b>              | 일 시 :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 장 소 : 일송기념도서관 C.Square  |          |    |     |    |  |    |  |
| <b>참석자 명단</b>                 | 학번   | 2023**** | 이름 | 김○후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19**** | 이름 | 조○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0**** | 이름 | 김○연 | 학번 |  | 이름 |  |
|                               | 학번   | 2021**** | 이름 | 이○정 |    |  |    |  |
| <b>토의 내용<br/>(읽은 책을 중심으로)</b> | <p>1. 개요: 그동안의 북클럽 활동을 다시 돌아보고, 각자의 활동 소감 및 느낀점을 이야기한다.</p> <p>2. 세부 토의내용</p> <p>(김○후)</p> <p>혼자서 책을 읽을 때는 책 내용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북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책의 내용과 관련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p> <p>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니, 인공지능에 대하여 복합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책의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여러 최신 기술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영향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p> <p>(조○연)</p> <p>독서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다는 생각으로 북클럽 활동을 신청했다. 정말로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은 책을 읽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기도 했다.</p> <p>독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토의하는 활동을 하니 책의 내용이 기억에 더 잘 남는 것 같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이었고, 특히 인공지능에 대하여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p> <p>(김○연)</p> <p>새로운 사람들과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독서 토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견문과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활동이었다.</p> |          |    |     |    |  |    |  |

(이○정)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토의하는 과정이 유익하게 느껴졌다. 토의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저마다 다른 전공을 가진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공지능을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지능 기술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

2023년 5월 30일

참가자대표 : 김○후